



SCROLL DOWN TO EXPLORE ↴ SCROLL DOWN TO EXPLORE ↴

EDITORIAL

PASSIONATE

BOOK DESIGN

■ 01

존경하는 디자이너인 폴랜드를 선정하여 만든 북 디자인
폴랜드의 그래픽 스타일이 잘 나타날수 있게 디자인 하였다.

폴랜드 북 디자인
PAUL RAND DESIGN











BOOK DESIGN

■ 02

걸그룹 블랙핑크의 잡지 디자인

사진과 블랙핑크의 아이덴티티인 검정과 핑크 색깔이 잘 드러나도록 작업 하였다.

블랙핑크 잡지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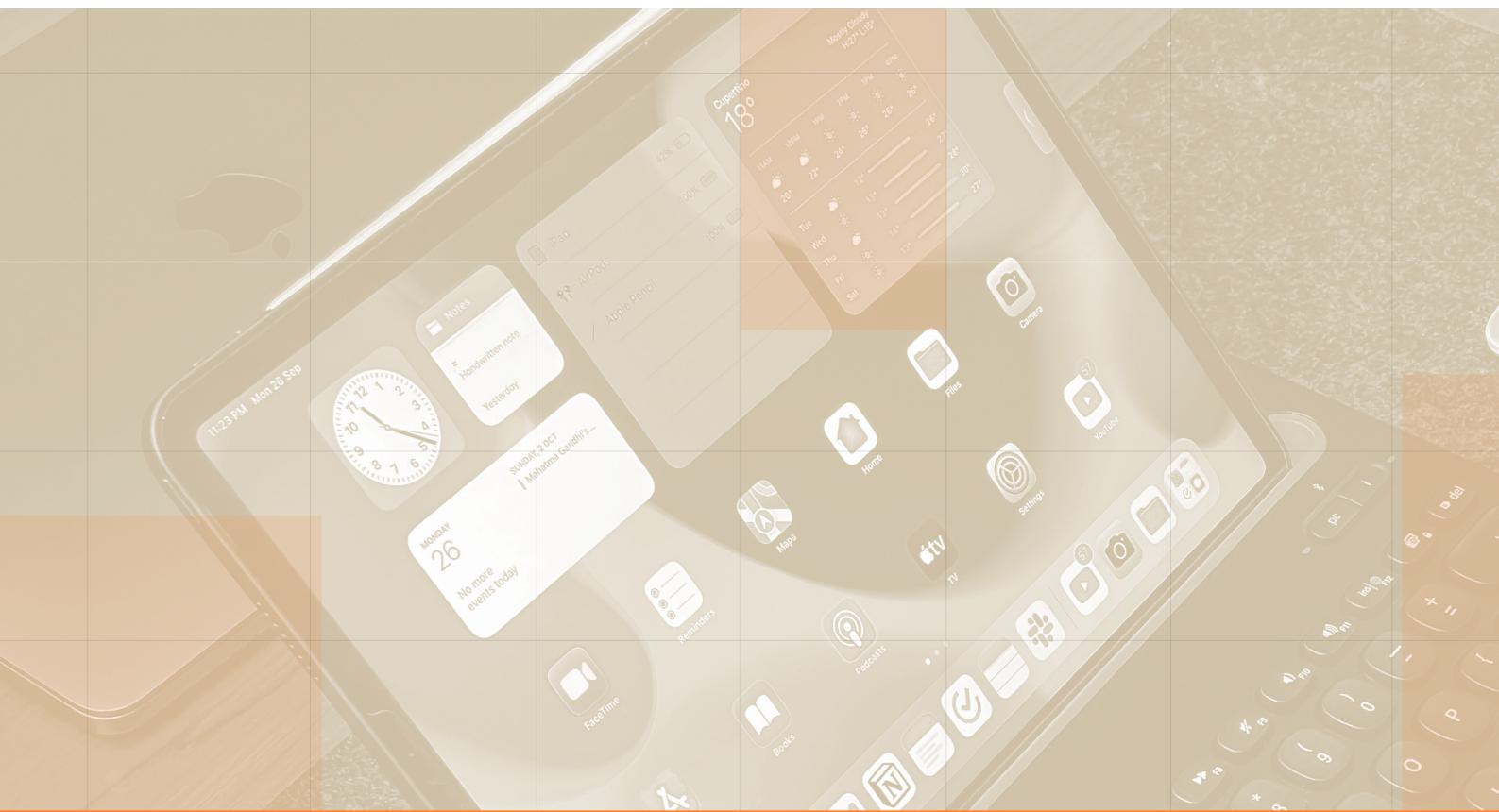






UI & UX

PASSIONATE



SCROLL DOWN TO EXPLORE ▾ SCROLL DOWN TO EXPLORE ▾

MOBILE APPLICATION

■ 01

동화책 전용 도서 소비자 공유 시스템

도담도담

추상적인 그래픽과 기하학적인 도형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디자인 컬러를 사용하였다.





OVERVIEW

매해 읽고 버려지는 동화책들 또 사고 버리는 것도 아까운데 이 책을 나눌 수는 없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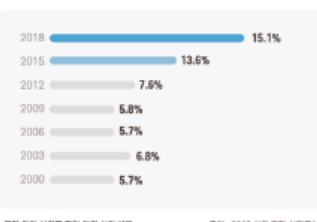
도담도담은 “더 이상 읽지 않거나 버릴 예정인 동화책”을 “소비자간 공유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유하는 서비스입니다. 아동들이 동화책을 더욱 더 가까이 하고,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아이들이 시기마다 읽어야 하는 책들이 바뀌어짐으로 인해 버려지는 책을 줄이기 위하여 고민 되었습니다.

RESEARCH

공공 도서관 1관당 장서 폐기 수



청소년의 읽기 부진, 18년 사이 3배 가까이 증가



BACKGROUND

동화책 공유 어플?

아동들의 독서 태도가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고 아동들의 독서량이 줄고 있다라는 추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Children's reading attitudes are changing negatively and children's reading volume is declining. That trend continues.

▶▶▶ 책 친구주기가 초등학교를 축제로도 자아존중감에 대처하는 경향



일반 성인 책보다 인쇄하는 비용도 많이 들고 코팅이 되어있어
“제작비용”이 쉽지 않은 동화책 나눌 수는 없을까?

“소비자 공유시스템”과 “커뮤니티”를 이용하여 소비자 간의 책을 나눌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자

CORE VALUE



사용자가 서로의 책을 공유함에 책은 공동자산임을 확보합니다. 사용자가 서로 작품을 하여 작품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어나갑니다. 활발한 소통을 통하여 지역사회를 활발하게 하는 데 영향을 끕니다.

PERSONA



이서연, 2남매의 엄마, 32살

아이들에게 사춘 동화책 처럼 그립겠어요. 아이들은 한해 한해 읽어야 할 수준의 책들이 바뀌어서 이미 산 책들도 끝지 못하고 버려야 했는데 도담도담 어플로 아이들이 안읽는 책을 정리할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김주영, 한 아들의 아빠, 35살

제 아들이 게임과 유튜브만 하고 도서관에 데려다 줄 시간도 없어 고민이었는데 도담 도담 어플을 사용하고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선물해줄수 있어서 좋습니다.



NAMING [도담도담] Do dam Do dam

“도담도담”

도담도담은 “어린아이가 달 없이 잘 놀며 자라는 모양”이라는 순우리말입니다. 여기에 “도서를 담는다”라는 뜻을 넣어 다양한 뜻을 가질 수 있게 지었습니다.



도담이



책갈피가 걸려 있는 책의 모습에서 모티브를 얻어 친근하고도 활발한 모습을 표현하였습니다.

